■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09-436.
http://doi.org/10.17948/kcs.2023..100.409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위장 개종에 대한 연구*
—수운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창익(李窓益)**

목 차

1.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생존법
2. 죽음에서 부활한 교조: 수운교의 시작
3. 수운교의 분열: 미신을 넘어 유사종교로
4. 수운교의 집단 개종: 유사종교에서 종교로
5. 수운교의 위장 개종 사건: 이중화된 종교
6. 움직이는 종교: 드러난 종교와 숨은 종교

국문초록

한국종교사에서 일제강점기만큼 수많은 종교가 생장소멸을 반복했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가용한 모든 종교적 자원을 동원하여 실현 가능한 온갖 종교를 세상에 등장시킨 시기였다. 본 연구는 동학 계열 신종교 분파로 평가받는 수운교의 탄생, 성장, 분열의 과정을 묘사하고, 이를 토대로 1937년 일본 불교로의 개종과 1938년과 1941년의 위장 개종 사건을 추적해 보려 한다.

수운교는 미타교, 흥룡사, 무극대도 등으로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일제강점기 신종교가 식민지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준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표면에서는 줄곧 일제에 타협하고, 끝내 일본 불교로 '집단 개종' 하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장 개종'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면의 핵심에서 수운교는 식민지 상황에 대한 종교적인 저항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진면목은 친일과 반일의 이분적인 도식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의도적으로 종교 외부의 자료를 통해 종교를 묘사하고자 했다. 수운교뿐만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6586)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아니라 현존하는 많은 신종교는 식민지 상황과 관련한 자료 가운데 자기 종교에 유리한 자료만을 취사선택하여 초기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용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역사를 서술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식민지 시기에 신종교가 실현했던 매우 독특한 종교적 가능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

주제어: 수운교, 위장 개종, 미타교, 흥룡사, 진종대곡파.

1.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생존법

종교를 연구할 때 잘 정리된 객관적인 자료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경우 종교연구자는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적인 자료를 엮어 자기만의 종교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시도해야 한다. 종교 관련 자료는 유독 극단적이거나 선명한 가치 판단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교연구자는 긍정의 자료와 부정의 자료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자료의 부정과 자료의 긍정이라는 평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신종교를 연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현재 여전히 존속하는 종교일 경우 우리는 해당 종교의 회고적인 역사서술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많은 신종교가 탄생하고 그 교조가 활동한 기원의 시간이었다. 기원을 회고하는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신종교의 역사서술은 신화에 오염되기 쉽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접촉이나 동화, 초인간적 존재의 출현, 지상천국의 도래 같은 신화적인 주제가 끊임없이 신종교의 역사서술 안으로 파고든다. 따라서 종교 내부 자료로는 해당 신종교의 역사적인 좌표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신문, 잡지, 경찰 기록, 법원 기록 등 종교 외부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우리가 직접 새로운 종교 자료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 외부 자료는 식민주의자의 시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신종교는 혁명사상과 민족의식을 조장하거나, 미신을 유포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말세론으로 노동 정신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되곤 한다.

일제강점기 신종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종교 내부에서 생산된 자료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종교 외부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외부자의 시선으로 신종교의 생장소멸을 묘사해 보려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도 식민지 시기 자료의 오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대한 비판적으로 자료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점검한다면, 역사적인 좌표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제강점기 신종교를 좀 더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서구적인 종교 개념에서 개종은 종교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기호'일지 모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신종교는 창교, 탈교, 전교, 개종, 배교를 무수히 반복하고, 나아가 '드러난 종교'와 '숨은 종교'로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중화하면서 종교적인 생존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구적인 종교 개념으로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전모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동학 계열 신종교 분파로 평가받는 수운교(水雲教)의 탄생, 성장, 분열, 해체의 역사적인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고, 이를 토대로 1937년의 개종 사건과 1938년과 1941년의 위장 개종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 보려 한다.[2] 물론 현존하는 신종교로서 수운교는 이미 자체의 교단사까지 서술하고 있다.[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 자료로 수운교의 역사를 재서술함으로써 수운교가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생존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

1) 수운교의 내부 자료에 근거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들 수 있다. 변문호, 「수운교 연혁 및 교리개관」, 『신종교연구』 3, 한국신종교학회, 2000; 강돈구, 「수운교의 특징과 전개」, 『종교연구』 42, 한국종교학회, 2006; 이찬구, 「수운교 경전성립과정 고찰」, 『신종교연구』 17, 한국신종교학회, 2007; 이유나, 「구술사 방법론을 이용한 수운교 연구」, 『인문학연구』 50,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5.

2) 수운교의 집단 개종에 대한 소략한 연구로는 일본학자의 다음 논문을 들 수 있다. 新野和暢, 「十五年戦争期の韓国宗教: 水雲教の日本国真宗大谷派への帰属について」, 『日本佛教文化研究』 17,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7; 大澤伸雄, 「東学系水雲教『水雲教真理』の和訳と研究: 日帝時代における真宗大谷派への帰属と抵抗に関連して」, 『桜花学園大学人文学部研究紀要』 6, 豊田: 桜花学園大学, 2003.

3) 수운교교리연구원, 『수운교 진리』, 수운교 출판부, 1999.

2. 죽음에서 부활한 교조: 수운교의 시작

1923년 5월 28일 경성부 계동 15번지 7호 권병덕(權秉悳)의 집에 '천도교 영우 구락부(天道敎靈友俱樂部)'라는 간판이 걸린다. 동년 5월 30일 오전 9시 반에는 천도교도 김순원(金純元)과 권병덕 등이 주도하여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의 소생식 또는 102회 탄생기념 축하연이 이곳에서 열린다. 천도교 도사(道師) 권병덕은 천도교의 핵심 인물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때 지방에서 상경한 남녀 신도 220여 명이 최제우의 환생으로 여겨진 이상룡(李象龍)과 그의 부인 앞에서 차례대로 10명씩 절을 하고 10분 정도 기도를 올리며 만수무강을 빌었다고 한다.[4] 매일신보 기사는 이상룡을 최상룡(崔尙龍)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의 나이도 120세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상룡이 자기 나이를 102세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천도교중앙총부는 천도교와 무관한 단체가 '천도교 영우 구락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천도교의 서무과장을 지낸 바 있는 권병덕은 중앙총부에 찾아와 최제우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수천의 교도가 있는 수운교와 천도교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처음 소문을 듣고 천도교중앙총부의 김옥빈(金玉斌) 등이 방문하여 최제우의 회생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별 답변을 얻지 못한다. 5월 30일에는 차상찬(車相瓚) 등 30여 명이 소생식 현장을 찾아간다. 이 자리에서 권병덕은 최제우가 정말 소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룡은 산중에서 오랫동안 도를 닦아 수운대신사의 영적 정신 또는 영혼을 받았고, 이제 사분오열된 천도교의 각파를 통일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라고 말한다.

---

4) 1923년 5월 30일 천도교와 수운교의 충돌 사건은 다음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각 기사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일관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六十年前에 殉敎한 崔水雲이 復活」, 『동아일보』 3면 1단, 1923.5.31.; 「水雲神師還生이라고 虛無孟浪한 怪物: 괴물의 정톄 최상용은 텬도교도에게 ᄆᆡ를 맛고 종로셔 구인, 昨午 桂洞에 生한 大活劇」, 『每日申報』 3면 4단, 1923.5.31.; 「自稱의 水雲神師, 事實은 禮山人 李尙龍」, 『조선일보』 3면 3단, 1923.5.31.

5) 수운교교리연구원, 『수운교 진리』, 78면. 최제우는 1824년 12월 18일(음력 10월 28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운교 교단사는 최제우가 1822년 음력 4월 15일에 외금강 관음봉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3년 5월 30일은 음력 4월 15일이다. 따라서 1923년이면 '최제우의 화신'인 이상룡의 나이가 102세로 계산된다. 수운교에서 이상룡은 용을 부리는 출룡자(出龍子)로 지칭된다.

차상찬은 정말 최제우가 부활한 거라면 이상룡을 통해 직접 최제우의 말을 들려 달라거나, 최제우는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화로에 손을 올려 불태워 보라는 등의 요구를 한다. 그러나 이상룡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극도로 분개한 차상찬 등이 요리상을 뒤엎는 바람에 이상룡의 온몸은 음식투성이가 된다. 차상찬 등은 이상룡을 구타했고, 권병덕 등의 천도교인이 이상룡이라는 노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양편 사이에 일장 격투가 벌어진다. 이어 종로경찰서의 경관이 출동하여 오후 12시경 겨우 격투를 진압하고 이상룡을 종로경찰서로 데려간다.[6]

매일신보 기사는 이상룡에 대해 최제우의 환생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삼는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죽은 최제우의 부활 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1864년에 최제우는 자신에게 닥칠 액운을 미리 알고 이 세상을 떠나 광중천(光中天)으로 갔고, 다른 교도가 자기의 몸을 대신하여 참형을 당하게 했다.[7] 그 후 그는 계룡산에 은거했다. 그런데 천도교가 신파와 구파로 분열되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기독교의 득세로 종교와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자 그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1923년 음력 2월 황해도 해주와 신천 등을 다니면서 앞으로 수해, 한재, 유행병으로 2천만 조선 민중이 모두 목숨을 잃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룡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산중에 은거하면서 영혼을 이용하여 병을 고치는 비법, 즉 영매로서의 능력을 터득했다고 한다. 1921년에 그는 출옥한 손병희(孫秉熙)를 찾아가 자기가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고, 여러 번 청을 하여 이틀 동안 치료했지만 효력이 없었다고 한다.[8]

종로경찰서에서 이상룡은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 자기가 사분오열된 천도교를 다시 통일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고, 자기 나이는 사실 102세가

---

6) 『수운교 진리』, 206면. 수운교 교단사는 이 사건을 "천도교 청년 수십 명이 몰려들어 소란을 피우니 현도식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라고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7) 『수운교 진리』, 161면. 수운교교단사는 최제우가 허신(虛身) 참형을 통해 죽음의 형장을 이기고 '사지환생'(死地還生)'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8) 『수운교 진리』, 201-202면. 수운교 교단사에 의하면 이상룡은 1922년 초에 권병덕의 주선으로 손병희를 만났다.

아니라 65세라고 밝힌다.[9]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상룡은 충남 계룡산에 거주하며 매월(梅月) 또는 용담(龍潭)이라는 별호를 사용했고, 1923년 2월경 황해도 해주에 가서 자기가 최제우의 환생이자 광중천이라는 하늘에 살던 신인(神人)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수하 3명을 데리고 경성에 올라와 수창동 200번지 최숙형(崔淑亨)의 집에 머물렀다.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경찰은 이상룡이 갑자년 즉 1924년 4월 18일에 조선이 완전히 독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세교(濟世敎)라는 이름의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관련자 검거에 나서기도 한다.[10] 그러나 별 소득은 없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최제우의 부활을 자처하는 망령든 노인이 불량한 자들에게 이용당했다고 판단하고 5월 31일 이상룡을 구류 처분한다. '가수운(假水雲)'이라 조롱받던 이상룡은 종로서 유치장에서 1주일 구류를 살고 6월 8일 오전에 풀려나 6월 9일 고향으로 돌아간다.[11] 권병덕은 이상룡을 이용해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신도 200여 명을 모은 후 이상룡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등의 말로 돈을 거두었다는 혐의를 받고 종로서 고등계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는다.[12] 권병덕은 손병희 사후 천도교가 신파와 구파로 분열하는 상황에서 이상룡을 통해 세력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제우의 육적 부활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부활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상룡을 죽은 최제우와 통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최제우의 영이 빙의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

1920년대에 많은 신종교가 난립하자 '종교병자'나 '종교제조업' 같은 거칠고 멸시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제우의 부활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13] 당시 조선시보도 이 사건을 최제우의 재생을 믿는 미신적인 사람들이 벌인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있다.[14]

---

9) 매일신보 기사는 그가 120세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6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서의 기록대로라면 1845년생인 이상룡의 당시 실제 나이는 79세였다.

10) 「鷄龍山中에 居住者로 祕密結社의 首領인듯, 종로셔에셔는 계속 활동중」, 『每日申報』 3면 4단, 1923.5.31.

11) 「假水雲의 歸鄕, 구류를 맛치고」, 『每日申報』 3면 9단, 1923.6.9.

12) 「李尙龍은 拘留, 자칭 수운대사가 종로셔 류치장에」, 『조선일보』 3면 2단, 1923.6.1.; 「權秉悳을 取調, 괴물 로인을 리용하랴던 죄로」, 『每日申報』 3면 8단, 1923.6.1.

13) 「普天敎聲討 大講演會를 開催」, 『조선일보』 3면 4단, 1923.5.31.

1923년 6월 1일이 되면 이상룡의 정체를 밝히는 신문기사가 등장한다.[15] 최상룡(崔尙龍), 최제우(崔濟愚), 이상룡(李尙龍) 등으로 일컬어지던 이상룡의 출생지는 경남 경주군 서면 용담리였고, 원적지는 대전군 구진면 송강리였다. 그의 부인 안성녀(安姓女, 당시 50세)는 목포에서 무당을 하던 여자로 중년에 이상룡을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안성녀 본인은 16세 때 이상룡과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이상룡은 10세 때 부모를 잃고 남쪽 지방을 방황하다가 16세 때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금강산 유점사에 승적을 둔 승려가 되었다. 그 후 그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수양을 했고, 48세 때부터는 태백산 갈려사(葛麗寺)에 은거하며 5년 동안 묵상과 기도를 하고 수도 생활을 했다. 53세 때는 경북 대구의 상화사에 승적을 두고 2년 동안 남쪽 지방을 주유했고, 1922년 2월경 고향인 대전 송강리로 돌아와 안성녀와 결혼한 후 불도를 계속 닦았지만 항상 생계 곤란에 시달렸다.

이때부터 그는 영적인 힘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함께 절을 떠난 박상호(朴相鎬)와 박시현(朴時鉉)이라는 두 형제 제자가 있었다.[16] 그들은 이상룡에게 유불선 삼교를 통합한 종교를 창립하여 교도를 많이 모으면 생활고도 해결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상룡은 동학을 믿기 시작했고, 1923년에 영적 치료를 하다가 최제우의 정신을 그대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상호는 수운교의 도주(道主)였던 박성호(朴性昊)이고, 박시현은 박성호의 형인 박성현(朴性泫)일 것이다.

다른 기록을 보면 이상룡은 6세 때 부모와 사별한 후 불국사에 출가했고, 양산 통도사, 지리산 대원암,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업했으며, 전 조선을 주유하며 무위자연의 삶을 계속했다. 그 후 충남 청양군 도성암(道成庵)에서 약 10년간 머무를 때 어떤 사람이 시주를 하면서 절을 세운 후 교를 창립하라고 권유했다고

14) 「天道教祖の再生, 百廿歳の老人を恭しく禮拜する, 青年有志は正體を現すと力む」, 『朝鮮時報』 3면 1단, 1923.6.1.
15) 「虛無한 거짓말의 主人公 李象龍의 根本, 집세와 외상에 우는 그의 안해」, 『동아일보』 3면 4단, 1923.6.1.; 「假水雲은 1주일 拘留에, 남의 정신에 놀든 망녕된 로인」, 『每日申報』 3면 8단, 1923.6.1.
16) 매일신보 기사는 박상호(朴相鎬)가 아니라 박상현(朴相鉉)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다. 그리하여 그는 박성호 등과 의논한 후 불교를 기반으로 하여 유교와 선도를 가미한 종교를 창립했다. 1919년 3월 이상룡이 박성호와 의논하여 수운교의 교의를 수립했다고 한다.[17] 권병덕과 뜻을 같이한 후 박성호와 박성현은 이상룡과 함께 황해도 해주, 송화, 신천 등을 돌며 다시 살아난 신인(神人) 최제우가 유불선 삼교를 통일하여 억조창생을 구할 거라는 풍설을 각지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1923년 8월 1일에 이상룡은 거듭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그는 다시 경성 계동에 올라온 후 권병덕 등의 도움을 받아 네 귀퉁이에 포덕광제(布德廣濟)라고 적힌 첩지를 만들어 여자에게는 호첩(號牒), 남자에게는 정첩(正牒)이라는 이름으로 배부했다. 이 첩지는 반지 반절 크기의 종이에 천황씨탄강(天皇氏誕降)의 연호, 일본 연호에 의한 연월일 표기, 천황씨의 날인 등을 기재한 일종의 사령장이었다. 8월 1일 종로서 고등계는 200매의 첩지 가운데 이미 발행된 100매를 제외한 나머지 100매를 압수하여 모두 불태웠다.[18] 경찰은 이 첩지를 신종교 건설을 위한 인사 지령장으로 간주하고 불경죄나 출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상룡을 취조했다. 천도교에서는 1919년 이전에 제1세 교주를 천황씨, 제2세 교주를 지황씨(地皇氏), 제3세 교주를 인황씨(人皇氏)로 지칭했다고 한다.[19] 그러나 이 사건도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 않다.

1923년 11월 5일자 매일신보는 60여 년 전부터 동학의 일파로 성령(性靈) 수련에만 종사하던 교인, 그리고 동학 각파에서 이제까지 교회 사무에 종사하던 교도가 단합하여 경성부 광희정(光熙町)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수운교라는 종교단체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곧 임정(林町)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있다.[20]

마침내 1923년 11월 6일 수운교가 창립되며 경성부 임정에 수운교 본관을 두고 각지에 분관을 만들어 교도 1,000호 1만 2천 명이라 칭했다. 1924년 4월

17) 池田林儀, 「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京城日報』 3면 2단, 1937.2.14.
18) 「假救世主 텬황씨의 년호로 정쳡 호쳡을 배부, 발각되야 전부 압수」, 『동아일보』 3면 6단, 1923.8.2.; 「李尙龍이 再現, 거짓 수운 선싱이 또 무엇을 운동중」, 『조선일보』 3면 8단, 1923.8.11.
19) 「天皇氏 再次 擡頭, 밋친 늘그니 라상룡 두번재 음모를 쑴이다가 발각 취됴」, 『每日申報』 3면 4단, 1923.8.11.
20) 「水雲教가 新現, 부내 림뎡에」, 『每日申報』 3면 6단, 1923.11.5.

에는 본관을 주교정으로 옮겼고, 동년 11월에는 서대문정으로 옮겼다. 동학 계열 신종교의 내분으로 천도교와 시천교(侍天敎)에서 수운교로 전교(轉敎)하는 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수운교의 핵심 인물은 천도교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천도교 구파 청년들은 이상룡이 교조의 이름을 더럽히고 천도교를 우롱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로 인해 수운교는 경성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21]

3. 수운교의 분열: 미신을 넘어 유사종교로

1924년 8월 이상룡은 평안도에 산재한 수운교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 간다. 이상룡이 평양부 창전리 89번지 채보화(蔡寶貨)의 집에 머물자 103세 노인을 보러온 남녀노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22] 1924년 11월 11일에는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7번지 수운교 본관에서 수운교 개교 1주년 축하기념식이 열린다. 최득우(崔得雨)와 권병덕이 집례를 했고 지방 교도 500명이 참석했다. 불과 1년 만에 조선신문은 수운교를 '천도교 별파'로 표기하면서 1923년 5월처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찰이 엄중 경계를 섰다고 전한다.[23] 괴물, 미신, 망령든 노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던 1년 전에 비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는 수운교의 교도가 2만 4천 명이고 권병덕이 관리자로 있다고 밝히고 있다.[24]

시대일보에 따르면 수운교는 1920년 경신년에 이상룡이 창시하여 일정한 기관도 없었지만, 1923년 음력 4월 15일 이상룡의 생일을 기점으로 교도를 규합하여 음력 10월 15일 정식으로 종교단체를 조직했다.[25] 그런데 시대일보 기사는 수운교에 여러 가지 미신이 있어 혹세무민하는 폐단이 적지 않고, 간부들 간에도 신구 사상의 충돌로 인한 세력 쟁탈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종파의 이합집산으로 만들어진 수운교가 머지않아 겪을 분열의 씨앗이

21) 中川矩方, 『内地・鮮・台・満洲国思想犯罪捜査提要』, 東京: 新光閣, 昭和9(1934), 432-433면.
22) 「百三歲의 水雲敎先生, 문전에 구경꾼이 답지」, 『每日申報』 3면 3단, 1924.8.26.
23) 「水雲敎記念式」, 『朝鮮新聞』 3면 10단, 1924.11.12.
24) 「一周年 마지의 水雲敎紀念式, 작십일일 오젼에 수빅명 교도들이」, 『每日申報』 3면 3단, 1924.11.12.
25) 「물거픔가티 써도든 水雲敎의 開敎式, 최수운 선생이 재생했다고 이만여 명 교도를 긔만 취재」, 『時代日報』 1면 5단, 1924.11.12.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1924년 11월 22일에는 수운교 감리사(監理師) 남도희(南道熙)와 이재헌(李在憲), 감사 최준철(崔焌澈)과 강일선(姜一善), 본관 서기 이용휘(李容輝), 교인 정두현(鄭斗鉉)과 김광호(金光浩) 등이 일반 교도에게 질의문을 배포했다. 그들은 교리 등 의심점에 대한 질문을 이상룡에게 제출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교명이 수운교인데 수운의 법문이 교리에 없다는 것, 최제우는 1824년 갑신년에 태어났으므로 1924년에 101세인데 수운 강생 103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로는 67세인 이상룡이 어떻게 최제우일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26] 금전 모금과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7월에는 시천교와 수운교가 합병한다는 소문이 돈다. 시천교는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의 시천교총부(侍天教總部)를 가리킨다. 1만 8천 명 이상의 교도가 있는 시천교가 자금난으로 결국 수운교와 통합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27] 1913년 3월 김연국은 송병준(宋秉畯)의 시천교본부와 결별하고 시천교총부를 설립했는데, 이때 김연국과 함께한 인물이 바로 권병덕이었다. 그 후 권병덕은 1915년 5월 중앙시천교회본부(中央侍天教會本部)를 설립하여 김연국과 결별한 후 다시 1916년에 천도교로 복귀했다.[28] 따라서 시천교총부와 수운교의 통합 논의는 권병덕이 주도했을 것이다. 수운교와 시천교총부의 몇몇 간부들이 합병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양교의 합병은 불발로 끝난다. 이 무렵 김연국의 시천교총부는 가회동을 총본부로 하여 교명을 상제교(上帝教)로 고치고 간부도 새로 임명했다.[29] 그리고 합병 운동의 주역이던 권병덕이 수운교의 다수 교도를 이끌고 상제교로 전교하면서 권병덕과 이상룡은 결별하게 된다.

---

26) 「水雲教의 內訌, 교쥬와 교리가 모다 상위된다고 일부 교도가 질의문을 빈포힛다」, 『每日申報』 3면 2단, 1924.11.24.

27) 「侍天教と水雲教の合同」, 『京城日報』 3면 9단, 1925년 7월 11일; 「侍天教遂に水雲教と合併」, 『朝鮮新聞』 3면 9단, 1925.7.11.

28) 김정인, 「大韓帝國期·日帝强占期 侍天教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국사편찬위원회, 2003, 13-17면.

29) 「兩教併合 瓦解와 侍天教名 改稱, 只今부터는 '上帝教', 수운교 간부는 교도 다수를 다리고 상뎨교로 드러갓다」, 『每日申報』 2면 5단, 1925.7.27.

아마도 이 사건의 여파로 이상룡은 1925년에 충남 대전군 탄동면 추목리에 사택을 지어 이거한다. 금병산(金屛山) 아래 백 만의 시민을 수용하는 도시가 생긴다는 정감록의 예언에 따라 이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수운교는 추목리 금병산의 땅을 구해 공비 1만 원을 들여 1927년 여름부터 천단(天壇)을 신축하기 시작하고, 1928년 5월 4일에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상동식을 거행한다. 평남북, 황해도, 함남북, 강원도에서 수천 명의 교도가 상동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경성일보는 당시 수운교의 교도가 8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30]

1927년부터 공비 3만여 원을 들여 약 2천 평의 부지에 짓고 있던 천단은 1929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1928년에 천단을 완공하지 못했고, 공비도 1만 원에서 3만여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천단 완공 후 수운교 본관도 금병산으로 이전한다.[31] 1930년 12월 4일에는 수운교본부에서 개교기념제가 열렸고 각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일보는 당시 수운교도가 10만 명이라고 적고 있다.[32] 기록마다 다르지만 수운교는 전 조선으로 확장되어 충남 12개, 충북 8개, 강원 11개, 경기 4개, 황해 5개, 평남 13개, 평북 6개, 함남 4개, 경북 5개, 전북 2개, 전남 5개 등 75개의 지부를 두었고 교도는 5천 명 이상이었다.[33]

1932년 11월 20일자 중앙일보는 '미신의 소굴' 수운교에서 재물을 두고 내홍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한다. 도주 박성호가 재무를 맡은 반무록(潘武錄)에게 음력 10월 15일 수운교 창립기념일에 쓴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평소 박성호에게 불만이 있던 반무록파 4인이 11월 14일 밤 박성호의 집을 습격하지만 박성호는 출타 중이었다. 그들은 박성호의 형인 박성현의 집에 몰려가 언쟁을 벌이다가 그를 구타하여 혼절하게 한다. 박성현은 가택침입과 폭행 구타의 죄로 반무록, 변응복(卞應福), 김성일(金盛一), 박기술(朴基術) 등 4명을 탄동면 주재소에 고소한다. 그리고 박성호가 도주

30) 「水雲教の天壇上棟式」, 『京城日報』 3면 3단, 1928년 5월 7일. 경성일보는 이상룡의 나이를 87세로 표기하고 있다.
31) 「大田郡炭洞面の水雲教本部參集信者萬餘人」, 『朝鮮新聞』 3면 9단, 1929.5.25.
32) 「二千の信徒集る水雲教の開教記念」, 『釜山日報』 7면 3단, 1930.12.6.
33) 池田林儀, 「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京城日報』 3면 2단, 1937.2.14.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양파의 분쟁은 노골화한다.[34]

수운교의 창립 멤버였던 박성호의 사임으로 수운교는 다시 분열을 겪는다. 중앙일보는 당시 수운교도가 약 1만 명으로 평남과 황해도의 약 5천 명은 교주 이상룡을 따르고, 전라남북도의 약 5천 명은 도주 박성호를 따랐다고 전한다. 이상룡 측 교도가 수운교의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1932년 12월 8일에 채무 정리와 도주 배척 등을 결의하고 박성호를 축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운교의 1인자와 2인자가 재정 문제로 결별하게 된 것이다.[35]

박성호는 수운교를 떠나 대동교(大同教)를 창립한다. 1934년 12월 4일 대전군 진잠면 계산리에 있는 대동교가 입교(立教) 기념제를 거행하고, 대전경찰서 고등계 주임이 대동교 감시를 위해 출장을 간다.[36] 이 대동교는 박성호의 대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미신 사교 취체의 정국하에서 대동교가 감시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병덕이 분파하여 상제교와 합병하고, 박성호가 대동교로 분파하면서 수운교는 창립 멤버를 모두 잃는 뼈아픈 경험을 한다.

그러나 갈등의 다른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2년에 농촌진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신적인 유사종교에 대한 취체가 강화된다. 정치적 외압이 커지면서 유사종교의 생존 문제가 불거졌고 수운교 내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종교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운교는 조선총독부의 민심작흥운동에 따라 백의(白衣)가 아니라 색의(色衣)를 입고, 단발을 시행하고, 교리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변경한다.[37]

농촌진흥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34년에는 보천교(普天教), 동화교(東花教), 수운교 등 종교유사단체가 무지한 군중을 미신굴로 끌어들이고 시국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미신 단체'로 지목된다. 미신이란 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해한 믿음과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1933년 1월

34)「迷信의 巢窟 水雲教內訌」,『中央日報』2면 3단, 1932년 11월 20일;「水雲教의 內訌 派爭은 去益惡化: 직원끼리 구타와 고소질, 派爭의 道火線은 財物」,『中央日報』4면 10단, 1932.12.5.

35)「水雲教의 內訌, 結局 兩派로 分裂, 간판 한 개 안에 교주가 두사람, 今後의 水雲教는 어듸로!」,『中央日報』5면 3단, 1932.12.11. 또한 박성호에 대해서는『수운교 진리』, 630-631면을 참고하라.

36)「大同教紀念監視 警官을 派遣하야」,『每日申報』7면 4단, 1934.12.5.

37)「水雲教의 十週年記念式, 色衣斷髮을 實行, 大田에서 擧行」,『每日申報』4면 1단, 1933.12.8.

부터 1934년 3월까지 경찰의 취체를 받은 사건은 보천교가 98건, 동화교와 수운교가 72건, 합계 170건이었다. 교주가 왕으로 등극한다거나 교도가 고관이 된다는 유언비어 살포가 34건, 농촌진흥운동을 방해한 사건이 34건, 치병 사건이 7건 등이었고, 26명의 보천교도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천교도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었다.[38] 수운교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운교를 미신 단체로 거명하는 경미한 사건들에 교도들이 계속 연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수운교의 집단 개종: 유사종교에서 종교로

1937년 1월이 되면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선도에 부응하여 수운교가 5천 명의 교도를 거느리고 일본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 동본원사(東本原寺)로 귀속할 거라는 '집단 개종' 소식이 전해진다.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39]

수운교는 최제우를 부처의 화신이라 하여 교조로 받들고 있었다. 수운교에서 금병산 천단의 도솔천(兜率天)과 불탑은 경천배불(敬天拜佛)의 대상이었다. 천단은 정감록의 예언과 풍수에 따라 금병산 남쪽 산기슭의 최적지를 골라 수운교의 근본 도량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천단의 북쪽 벽에는 일월성신을 배치하여 도솔천을 형상화했고, 그 전당(前堂)에는 중앙의 미타탑, 우측의 금강탑, 좌측의 무량탑 등 총 3기의 6층 불탑이 안치되어 있었다.[40]

이상룡은 1934년 5월에 독실한 신자와 그 부모 등 371명의 위패를 만들어 봄가을에 위령제를 지냈고, 이 무렵부터 불상을 구입하여 본부에 안치시켰으며 교도의 가정에도 그림 불상을 걸게 했다. 1936년에는 신축한 본부의 대실(大室)에 불상 3개를 안치하고, 천도교 교파의 표지인 교기(教旗)도 고친다.

---

38) 「宗教類似迷信團體等 惑世誣民의 蜚語流布, 時局利用, 農村振興을 阻害, 보천교, 동화교, 수운교 등의 책동이 부절, 當局은 取締에 全力」, 『每日申報』 7면 1단, 1934.6.29.

39) 수운교 교단사는 일제의 종교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간략히 집단 개종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수운교 진리』, 707-716면.

40) 池田林儀, 「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二)」, 『京城日報』 3면 2단, 1937.2.16.

또 이상룡은 1935년 12월에 간부 3명과 함께 공주군 동학사에서 불식작법(佛式作法) 등을 견학했고, 직접 부처의 공덕을 설했으며, 조석으로 하는 독경과 설법도 불교적인 경향을 현저히 드러냈다고 한다.[41]

대전군 추목리는 원래 10호 정도의 소부락이었지만, 수운교 본산이 건립된 후 급속히 발전하여 한때는 5백 수십 호에 이르렀고 그 주민도 모두 수운교 신자였다. 1937년경에는 신자 주민이 절반으로 줄어 2백 수십 호만 남아 있었다. 수운교의 분열 후 이상룡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뿌리인 불교에 경도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교의 분열과 유사종교 취체의 압박 속에서 이상룡은 수운교의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42]

1937년부터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음력 철폐를 목적으로 조선민력(朝鮮民曆)을 약력(略曆)으로 개정한 후, 충청남도도 1937년부터 구 정월을 폐지하고 양력만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력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상룡의 지시로 추목리에서는 1937년부터 양력으로 정월을 보냈으며 일본식으로 집에 가도마쓰(門松)를 장식하고 일본 국기까지 게양했다.[43]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모습도 종교의 생존법에 대한 고심의 결과물일 것이다.

경성일보는 1937년 2월 14일~18일까지 4회에 걸쳐 「수운교의 동본원사 귀속: 조선 유사종교의 장래성」이라는 제목으로 주필인 이케다 시게노리(池田林儀)의 글을 연재한다. 이케다는 조선의 유사종교는 '미신적 망설'과 '정치적 언동'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정하고 순박한 신앙이 되지 못한 채 엄중한 취체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정신작흥운동과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된 후 종교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면서 일본과 조선에서는 유사종교와 사교에 대한 준엄한 취체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사교 청소'를 시작하면서 조선의 종교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충청남도는 1936년 5월 이후 수운교 선도에 집중

41) 「寺院創立願ニ關スル件」에 첨부된 '1. 水雲教狀況'을 참고하라.
42) 수운교의 불교식 의식과 불상 봉안이 일본 불교의 잔재라는 의심에 대한 수운교 측의 입장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운교 진리』, 712면.
43) 池田林儀, 「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二)」, 『京城日報』 3면 2단, 1937.2.16.

하면서 불교화를 종용한다. 이상룡도 '유사종교'로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불교화를 통해 '종교'가 됨으로써 교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1936년 6월 교주의 탄생기념제 때 열린 법사회(法師會)에서는 교명(教名)과 전제(典制)의 개정과 사원 인가 신청 등이 협의된다. 다소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936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논산군 두마면 소재 진종 동본원사 신도내 포교소에서 하계 불교강습회가 개최되자, 경찰은 수운교 측에 교도를 파견하여 수강하도록 종용한다. 일부의 반대는 있었지만, 결국 경찰의 의향에 따르기로 하고 교주의 양자 이은영(李殷英), 김찬호(金讚瓚), 김성일(金盛一), 윤지명(尹芝明) 등 4명이 파견된다. 그 후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김성일이 다른 교도의 배척과 폭행으로 한때 피난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종 개종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룡은 1936년 9월 11일 수운교라는 교명을 폐기하고 미타교(彌陀教)라는 교명을 일반 교도에게 발표하며, 11월 20일에는 전제를 고쳐 불교 귀의의 뜻을 분명히 한다.[44]

미타교로 개명하면서 본산의 천단 남쪽에 걸었던 금색으로 쓴 '도솔천' 편액를 떼고 '미타전'이라는 편액을 걸었고, 북쪽 벽에도 중앙의 아미타불, 우측의 관세음보살, 좌측의 세지보살 등 삼불상을 안치했다.[45] 그 후 1936년 12월에는 동본원사 포교사를 수운교 본부로 초빙하여 강습회를 열고 수운교도 전체가 청강을 하기로 한다. 이케다에 따르면 그 후 수운교는 미타교를 기성 불교와 합체하여 합법적인 포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5천 명 교도의 동본원사 귀속을 확정한다. 대전경찰서는 진종대곡파 대전포교소에 수운교 귀속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1937년 1월 5일 조선개교감독 우에노 고진(上野興仁)이 대전에 와서 인수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경찰이 미타교 교주와 간부들에게 의견을 묻자 결연히 일본 불교에 귀속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뜻을 표시한다.[46]

---

44) 「寺院創立願ニ關スル件」에 첨부된 '2. 眞宗歸屬ノ經緯'를 참고하라.
45) 미타교로 개칭한 후 귀속원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세 번째 연재 기사를 참고했다. 池田林儀, 「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三)」, 『京城日報』 3면 2단, 1937.2.17.
46) 「寺院創立願ニ關スル件」에 첨부된 '2. 眞宗歸屬ノ經緯'를 참고하라.

1937년 1월 24일 경성 남산 동본원사의 윤번이자 조선개교감독인 우에노 고진은 대전부 본정(本町) 동본원사 포교소로 출장을 가서 미타교 교주 이상룡과 회견한다. 우에노는 대전 지방의 동본원사 포교사, 신도, 총대 등 17명이 모인 가운데 미타교 본부에서 온 교주 이상룡과 간부 등 14명과 회견을 했고, 이상룡은 귀속원을 제출한 후 미타교 본부로 돌아갔다. 우에노 고진은 답례 인사를 겸해 미타교 본부를 방문하여 불전근행(佛前勤行)을 시찰했고, 다시 유성에서 양쪽 간부의 간담회를 열어 협의를 한 후 귀성했다. 우에노는 귀속원을 곧장 교토로 보내 수속을 밟았다. 교토 본산의 최고 수뇌부는 전례 없는 전향에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단 개종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난색을 보인 동본원사 측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속히 다치 기준(舘義順)를 파견하여 실정을 조사한 후 귀속원을 처리하기로 한다. 다치 기준은 2월 초에 조선에 와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고, 교토 본산에서 이상룡 이하 간부 여러 명이 득도(得度)를 받기로 결정된다.

이상룡은 귀속원을 제출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래 불교에는 국경이 없고 일본불교라 칭하는 것도 조선불교라 칭하는 것도 본디 하나이며, 내선인(內鮮人)은 본디 일가(一家)로 오랜 옛날부터 부처를 존중했고 부처에 귀의하는 일에서 보통의 형제가 아닌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다도 미타교의 불교 귀속은 정치적 의도나 책략이 아니라 유사종교의 자기 재생을 위한 방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교주 이상룡의 인격적 감화와 위력의 위대함으로 인해 교도 전체가 교주를 따라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7]

이케다는 유사종교란 그 한계로 인해 순정종교(純正宗教)로서의 내용과 실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가 비참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신작흥운동과 심전개발운동으로 인해 정신계와 신앙계가 정화되면서 종교도 순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수운교가 삼교 종합이라는 허울을 벗고 불교에 귀의한 것은 조선 종교계의 일대 격동이라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47) 수운교의 전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네 번째 연재 기사를 참고했다. 池田林儀,「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四)」,『京城日報』3면 2단, 1937.2.18.

다른 유사종교도 종교 본래의 권위, 존엄, 사명을 반성하고 정도(正道)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청소당할 운명'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관은 종교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속을 초월하여 중생 제도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케다는 정신을 지도하고 종교를 감독하는 당국에서 진짜 신념, 진짜 신앙, 진짜 희망, 진짜 광명을 대중에게 주려면 '순정합법'의 종교 신앙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이단사교와 유사종교를 엄격히 취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야 조선은 '종교 재발견'의 시대에 도달하고 있으며, 종교 부흥의 기운(機運)을 만나 앞으로 '신앙 조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37년 2월 19일에 교토 동본원사 본산 최고간부회는 이상룡의 귀속원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3월 16일에 교토에서 이상룡 이하 간부의 득도식(得度式)을 거행할 계획을 세운다.[48] 이로써 유사종교 미타교는 정식으로 불교라는 기성종교에 귀속되어 종교법에 준하여 포교할 수 있게 된다. 경성일보는 「미타교의 불교 귀속」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타교의 집단 개종을 "불교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49]

3월 11일 아침에 이상룡 이하 14명의 간부와 불교강습회 수강생 8명이 대전 동본원사에 집합하여 불교부인회의 오찬회에 참석하고, 조선 개교부원의 인솔하에 오후 3시 1분 대전역 발 열차를 타고 교토를 향해 출발한다.[50] 3월 11일자 조선신문은 득도식을 받는 14명 이외에 1명을 추가하여 일행이 15명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상룡 일행은 오사카에 들러 미타교 오사카 지부의 상황을 시찰한 후 3월 20일경 조선에 돌아올 예정이었다.[51] 1937년 3월 12일 이상룡 이하 간부 13명은 교토에 도착했고, 3월 16일 오전 10시 동본원사 대사당(大師堂)에서 오타니 고초(大谷光暢) 법주(法主)로부터 득도를 받았다. 득도식 이후 이상룡은 자기가 원래 동학에 귀의했다가 1923년에 수운교를 개창하여 한 때 신도수 10만 명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동본원사파의 포교사로

48) 「彌陀教幹部得度式, 東本願寺で三月執行」, 『京城日報』 7면 8단, 1937.2.23.
49) 「社說: 彌陀教の佛教歸屬」, 『京城日報』 3면 1단, 1937.2.24.
50) 「東本願寺で得度式, 李教主以下二十二名が上洛, 彌陀教正式に歸依」, 『京城日報』 5면 4단, 1937.3.12.
51) 「元彌陀教幹部等東本願寺で得度」, 『朝鮮新聞』 5면 8단, 1937.3.11.

활약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52] 이상룡 이하 미타교 간부 9명이 득도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53]

경성일보는 「미타교의 사명」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타교의 집단 개종은 조선 유사종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모델이 될 거라고 말한다. 즉 미타교가 근면, 규율, 청결, 부유를 통해 신앙과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위에서 이 모델을 추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 당국에서도 미타교 신앙촌인 추목리의 부락 생활을 개혁하기 위해 생업과 부업을 지도하고, 농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여 추목리를 낙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4]

교토에서 돌아온 후 이상룡은 조선 각지의 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토 본산으로부터 '금병산 흥룡사(金屛山 興龍寺)'라는 사호(寺號)를 받았다. 이 이름은 동본원사 조선개교감독인 우에노 고진의 '흥(興)'과 이상룡의 '룡(龍)'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4척 7촌 5분의 본존 불상이 도착하면 5월 15일에 성대한 입불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입불식에는 교토 본산의 다카오(高尾) 학무과장, 충남지사, 충남경찰부장을 비롯한 관민 귀빈 300여 명, 우에노 고진 등 조선 각지의 동본원사파 개교사(開教使) 30여 명, 조선의 신도 3천여 명, 입불식을 경찬하러 온 동본원사 신도 부인단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성일보는 이 사건을 부처의 손길로 '내선일여(內鮮一如)'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묘사했다.[55]

입불식 후 이상룡은 흥룡사 주직(住職)이 되기 위한 의식인 진산식(晋山式)을 치를 예정이었다. 당시 이상룡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타교가 수운교라는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근본은 매우 불교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1926년에 신도들에게 연화관(蓮華冠)을 쓰게 했고, 1929년에 육환장(六環杖)을 지니게 했고,

52) 「李象龍師以下全教團が愈東本願寺に歸屬」, 『朝鮮新聞』 2면 4단, 1937.3.17.; 「彌陀教主以下得度を受く, 京都東本願寺の擧式」, 『京城日報』 2면 5단, 1937.3.17.
53) 中西直樹, 『植民地朝鮮と日本仏教』, 京都: 三人社, 2013, 248면.
54) 「社說, 彌陀教の使命」, 『京城日報』 3면 1단, 1937.3.18.
55) 「眞宗に歸依した其後の彌陀教, 寺號も金屛山興龍寺と決定, 來月盛大な入佛式」, 『京城日報』 3면 1단, 1937.4.23.; 「宗教の內鮮一如, 元彌陀教の興龍寺けふ入佛式, 仙境秋木里の大繪卷」, 『京城日報』 7면 3단, 1937.5.15.; 「聖地金屛山下三萬の人出, 忠南大德郡興龍寺, 晴れの入佛式執行」, 『京城日報』 2면 5단, 1937.5.17.; 「元彌陀教, 盛大なる入佛式」, 『朝鮮新聞』 4면 2단, 1937.5.17.

1932년에 교명을 '불천(佛天)'으로 내정하여 부처를 중시하는 뜻을 나타냈고, 1933년에 금강탑, 미타탑, 무령탑 등 삼불탑을 천단 내부에 조성했고, 1936년에는 대봉사(大鳳寺)를 지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지보살을 봉안한 후 교명을 미타교로 개칭했고, 정식으로 6자 염불을 외게 하여 미신이라 비난받던 구태를 탈피하여 불법을 닦는 곳으로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즉 동본원사로 귀속하는 일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56]

1938년 4월 14일이 되어서야 흥룡사 창립은 공식 허가를 받는다. 총독부 학무국장이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흥룡사 창립 허가의 건」이라는 문서를 보면, 그간 충남도에서 심전개발과 사상선도의 관점에서 수운교의 불교화에 매우 공을 들였고, 결국 진종대곡파 귀속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원 창립 허가 표준 내규에 부적합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미타교는 이상룡 외 50명의 출원으로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흥룡사의 창립을 허가받는다. 사원창립원의 창립 사유를 보면 "전(前) 수운교(1936년 9월에 미타교라 칭함)라 칭하는 하나의 유사종교단체였지만 도 당국의 지도에 의해 진종대곡파에 귀속하고 구 미타교의 재산 전부를 제공하여 하나의 절을 창립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단신도원수(檀信徒員數)는 "조선인 8,407명"이라고 적혀 있다.[57]

5. 수운교의 위장 개종 사건: 이중화된 종교

수운교의 진종 개종은 조선총독부나 경찰이 기대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았다.[58] 1938년에는 이상룡이 입불식 거행 직후인 1937년 6월에 경기도 진위군 평택면 소재 흥룡사 진위출장소에서 신도 약 40명에게 수운교의 교리를 설하면서 "수도하면 도통할 수 있고, 도통자 30만명이 모이면 새로운 세상의 신국가를 건설하는 데 이를 수 있고, 도통자는 포덕사로서 세계 각국에 파견될 것이며, 그 지위는 현재의 도지사 이상일 것이다."라고 설교했던 사실이 발각된다. 이상룡은 충남 대전

56) 「佛教に國境なし, 眞宗大谷派に歸依した彌陀教主の聲明」, 『朝鮮民報』, 1937.5.17.
57) 「宗教: 寺院創立許可」, 『朝鮮總督府官報』 3375,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昭和13年(1938) 4月 19日; 「興龍寺創立許可ノ件」, 『昭和十三年 宗教 寺院에 關한 雜件綴』.
58) 「思想犯罪から觀た最近の朝鮮在來類似宗教」, 『思想彙報』 22,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40.3., 26면.

경찰서에 검거된 직후 11월 9일 고령으로 병사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되었다.

흥룡사 진위출장소 주임 서병석(徐丙奭)도 다수 교도에게 진종으로는 도통할 수 없고 수운교에 귀의하여 교주 이상룡 밑에서 신국가를 건설하여 부귀공명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중일전쟁에 패배한 후 조선에서 도주하고 조선이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미 고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1939년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언비어죄로 금고 10월을 언도받았다.

1938년 11월 9일 오전 9시에 노쇠하여 정양 중이던 흥룡사 주직 이상룡이 95세를 일기로 타계한다. 11월 11일 발상을 하고, 11월 17일 오후 2시 흥룡사에서 장례식을 집행할 예정이었다.[59] 1937년 11월 23일에 진종대곡파 관장(管長) 오타니 고초는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에게 「조선 충청남도 대덕군 탄동면 추목리에서 일사(一寺)를 창립하고 흥룡사라고 공칭(公稱)하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흥룡사 창립을 신청한다.[60] 여기에 첨부된 「사원창립원」, 「인감증명원」 등을 보면 흥룡사 창립자 이상룡은 일본 고카(弘化) 2년 즉 1845년 4월 15일생이고, 「신원증명원」을 보면 그의 본적은 충남 청양군 청양면 적누리(赤樓里)이다. 이 기록이 맞다면 이상룡은 94세에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38년 11월 10일자 부고에도 이상룡은 9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61] 1938년 『소화 13년 약력』에 실린 「연대표와 음양력 대조표」를 보더라도 1845년생인 이상룡은 1938년에 94세였다.[62]

1939년 7월 8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는 흥룡사 주직 이상룡이 1938년 11월 5일에 흥룡사 주직으로 취직했고, 1938년 11월 10일에 그의 사망으로 주직에 변동이 생겼다는 기사가 실린다.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나 기사가 실린 점도 이상하고, 이상룡의 주직 취직을 사망일보다 4일 전인 11월 5일로

59) 「李象龍師」, 『京城日報』 3면 6단, 1938.11.14.

60) 「寺院創立願二關スル件」에 첨부된 「朝鮮 忠淸南道 大德郡 炭洞面 秋木里ニ於テ一寺創立竝二興龍寺ト公稱之件」을 참고하라.

61) 「興龍寺住職死去ノ件」, 學務局長 發, 昭和 13年(1938) 11月 14日.

62) 朝鮮總督府觀測所 編纂, 「年代表竝陰陽曆對照表」, 『昭和十三年略曆』,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昭和 12年(1947), 31면.

적고 있는 점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상룡이 공문서에 주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다.[63]

9개월의 공백 후 1939년 8월에는 청주에서 28여 년 동안 거주하던 동본원사파 서원사(誓願寺) 주직 이오리 무가이(庵無涯)가 흥룡사 주직으로 영전한다. 이제 흥룡사는 함북, 전북, 경남을 제외하고 10개 도에 48개의 절과 50개의 문신도(門信徒) 즉 단가(檀家)가 있는 동본원사 거찰이라고 소개되고 있다.[64] 이상룡의 죽음 후에는 동본원사 승려가 흥룡사의 주직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38년 11월 9일 이상룡이 사망한 후 충남도 경찰부장은 경무국장, 각도 경찰부장 및 관할 각 경찰서장 앞으로 「흥룡사의 지도 취체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보낸다.[65] 이 문서를 보면 이상룡의 죽음 직전에 진종대곡파 흥룡사의 '수운교 비밀포교 용의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서병석 등 진위출장소의 일부 '불순한 신도'가 야기한 것으로 흥룡사 본사와는 하등 관계없는 사건으로 정리되었지만, 교 간부와 일반 신도에게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1937년에 미타교가 진종으로 개종할 때 일반 교도는 교주와 중앙 간부의 의도에 맹종하여 개종했으므로 개종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 동본원사 및 흥룡사는 전 신도의 개종을 이루기 위해 급격한 개혁을 피하고, 우선 신도들의 진종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배양한 후 교의 진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운교 비밀포교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개종을 저해하거나 역이용하는 반동분자가 있으므로 향후 지도 취체를 강화하여 개종의 최종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룡이 사망하면서 경찰의 취체는 좀 더 신중해진다. 먼저 충남도는 우에노 고진과 흥룡사 간부 5명을 충남도청으로 초치하여 지도 취체의 강화를 설명한다. 또한 이상룡의 죽음을 계기로 일거에 교의 개혁을 추진하여 완전한 진종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이상룡의 장례식 때 흥룡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지침을 시달하게 한다.

---

63) 「宗教: 住職異動」, 『朝鮮總督府官報』, 3339, 昭和14年(1939) 7月 8日.
64) 「庵住職榮轉」, 『朝鮮新聞』 5면 9단, 1939.8.25.
65) 「興龍寺ノ指導ト監督ニ關スル件 (學務局長 發 忠淸南道知事 宛, 昭和 13年[1938] 12月 14日)」, 『昭和十四年 宗教 寺院에 關한 雜件綴』,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1939에 첨부된 「興龍寺ノ指導取締ニ關スル件 (忠淸南道 警察部長 發 警務局長 殿, 1938년 11月 29日)」이라는 문서를 참고하라.

1938년 11월 17일 장례식을 치른 뒤 11월 18일에 흥룡사 간부들이 지방출장소 주임 및 신도에게 지침을 시달했고, 각 출장소와 전소(傳所) 주임에게 별도의 서면을 보내 그 내용을 참석하지 않은 신도에게도 주지시켰다. 당시 흥룡사의 출장소 및 전소는 전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 11개 도에 55개소가 있었고, 신도도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었다. 지도 교화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앞으로는 흥룡사에 일본인 전임 포교사를 상주시키기로 하고 11월 20일 사사키(佐々木) 개교사를 흥룡사에 보냈고 이후 교대로 개교사가 상주하게 했다.

둘째, 이상룡 사망 후 대부분의 신도가 탈교하여 교세 유지가 곤란해지고 흥룡사가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있었다. 이상룡은 혈연이 없어서 혈통 상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11월 18일부터 개교감독 우에노 고진이 직접 주직 사무를 겸했고, 이상룡의 양사자(養嗣子)인 이은영(李殷英)을 예정 주직으로 삼았다. 또 지방에 있는 출장소와 전소는 존치하지만 종래의 평의원(評議員) 및 선인사(善忍士) 등은 모두 폐지한 후 진종 불교의 방식에 의해 교내 기관을 개혁하고 역원을 임면하기로 했다. 흥룡사 「사원창립원」에 따르면 이은영은 1912년 7월 12일생이므로 당시 27세였다.

셋째, 수운교와 미타교 시절 신도가 소지하던 서류와 물건은 출장소와 전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파기하거나 처치하기로 했다. 수운교 및 미타교 당시 사용하던 의관, 육환장, 법첩(法牒), 수기소원성취부(水氣所願成就符), 신불(身佛), 금강탑, 수운교와 미타교 및 기타 동학 관련 서류가 그 대상이었다. 또한 출장소나 전소, 기타 신도는 앞으로 미타교 당시의 천단과 신중단(神衆壇) 등을 모두 폐지하고 그 대신 회불(繪佛)을 안치해야 했다.

넷째, 진종 개종 후에도 법요(法要)에서 청수(淸水)와 밥을 계속 바쳤지만, 이제는 그 대신 진종식의 곡물 과자와 떡을 바치기로 했다. 또한 미타교 시절 사용한 조선 재래의 불교 경문을 폐지하고 별도로 배포하는 한글본 진종보전(眞宗寶典)에 의해 순 진종의 경문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법요일과 교기 등 포교와 신앙의 방법도 모두 진종식으로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1941년이 되면 수운교 진종 개종의 속내와 전말이 드러나고 일제 검거가 시작되면서 '유사종교의 종교화'가 결코 유사종교 제거의 좋은 모델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66] 당시 체포된 김찬호(金瓚鎬)의 진술에 의해 진종 개종 당시 수운교의 내부 상황이 상세히 알려진다. 김찬호에 의하면 진종 합류를 결정할 무렵 이상룡은 교간부 7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수운선생이 창시한 무극대도(無極大道) 즉 수운교는 교명을 9번 바꾸고 10회째에 원래대로 복위하여 무극대도가 될 것이다. 이번에 경찰과 관헌에게 진종에 합류하라는 권유의 말을 들었는데, 미타교의 미륵존불이든 진종의 아미타불이든 부처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교는 진종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무극대도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만일 진종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관헌의 취체가 엄중해져 탄압을 받고 해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불교인으로 꾸미고 내면적으로는 수운교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교를 유지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책이다.

이상룡에게는 교명의 변경이나 예배 대상의 변경 같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믿음이 더 중요했다. 그에게 교명 변경은 다시 한 번 '숨은 종교'가 되는 정도의 의미를 지녔던 것 같다. 또한 이상룡은 진종에 합류한 후에도 흥룡사에 출입하는 교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진종을 믿어서는 하등의 이익이 없다. 수운교를 믿으면 삼재(三災)를 면하고 천지 변혁의 때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신선국이 출현할 때에 시위(侍衛), 선관(仙官), 기타 고위고관에 취임할 수 있다. 수운교 당시 교부한 사령서 같은 것은 후천 5만년의 신선국이 출현할 때 좋은 증거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수운교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모든 시련과 고난은 말세의 징후였다. 중요한 것은 말세를 견디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종 합류 후 진정으로 진종으로 개종한 수운교도는 거의 없었다. 진종과 달리 그들은 죽은 후에 극락정토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천지 변혁의 위험한 과도기가 낳은 재앙에서 목숨을 보존한 후 신선국에서 고위고관이 되어 장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죽음 이후의 사태가 아니라

66) 「鐵高祕 第1056號: 祕密不穩類似宗教檢擧ニ關スル件, 鐵原警察署長/朝鮮總督府江原道警部北村 發, 京城地方法院檢事正 殿」, 『思想에 關한 情報(警察署長)』(京城地法 檢事局, 1940.8.17.-1943.5.31.), 昭和 16年(1941) 12월 1일.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지향한 것이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교주 사망 후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운교의 핵심 간부 김찬호는 이상룡의 후계자가 되어 수운교를 재건할 계획을 세웠다. 김찬호는 수도에 전념하던 중 1939년 음력 12월 28일에 자택에서 취침하다가 죽은 이상룡으로부터 꿈의 선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은영에게 이를 알리고 선탁을 실행하려 했지만 이은영은 김찬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1940년 음력 2월 1일에 김찬호는 취침 중 다시 이상룡으로부터 선탁을 받았고, 2월 2일 박태영(朴台泳) 외 3명과 의논한 뒤 자택에서 수운교 식으로 치성제를 거행했다. 경찰 기록에 의하면 2월 1일 김찬호가 받은 선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전에(1939년 음력 12월 28일) 너에게 요구하여 둔 사항을 네가 이은영에게 전했지만 이은영이 이를 의심하여 실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내가 직접 용호당(龍虎堂)에 폭탄을 던져 용호당을 재로 만들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해의 용궁으로 가져간다. 또 너희들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옥황상제에게는 밥을 올리고 나에게는 올리지 않으므로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매일 나에게도 한 공기의 밥을 올리고, 또 치성제도 거행하라.

1940년 음력 2월 5일에 꿈의 선탁대로 흥룡사 제1건축물인 용호당이 낙뢰로 잿더미가 되자 김찬호는 무극대도 포교를 결의한다. 김찬호는 이상룡이 사망한 1938년 음력 9월 18일에 이상룡으로부터 심법(心法), 즉 수운교 포교의 전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용호당의 화재는 자기가 죽은 이상룡의 요구와 의뢰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이상룡의 뜻을 이어받아 자기가 수운교 즉 무극대도의 포교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67]

그런데 본부와 지방 교도 사이에 김찬호의 명성이 일면서 김찬호를 중심으로 수운교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은영과 그의 양모 정두순(鄭斗順)이 김찬호를 질투하여 "김찬호가 수운교를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대전경찰서에 밀고한다. 1940년 음력 3월 15일경 김찬호는 대전경찰서에 구속되어 취조를 받은 후 3월 21일경 석방되지만, 흥룡사에서 승적을 박탈당하고 추방된다.

승적 박탈 후 김찬호는 최제우와 영통하여 강서(降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67) 수운교 교단사는 김찬호의 포교 사건을 '철원 사건'이라 명명하고 있다. 『수운교 진리』, 733-737면.

1940년 8월부터 1941년 7월까지 명운경(明運經)을 저술하여 무극대도의 교지를 완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 수운교도에게 포교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거 명단에 오른 자는 당시 흥룡사 승려 장명찬(張明燦), 당시 부여신사(扶餘神社)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목수 김봉인(金鳳仁)을 포함한 충청남도 13명, 강원도 26명, 함경남도 2명, 경기도 1명, 황해도 5명 등 총 47명이었다.

1943년 8월 14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김찬호를 교주로 하는 무극대도교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심 판정이 내려진다. 김찬호 등 10명은 경성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회부되고 나머지 15명은 면소되었다. 기소된 25명 가운데 김찬호를 제외한 모든 이가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실이 이채롭다.[68] 김찬호와 함께 공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대다수가 천도교를 거쳐 수운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공판은 열리지 못하고 광복이 찾아온다.[69]

6. 움직이는 종교: 드러난 종교와 숨은 종교

한국종교사에서 일제강점기만큼 수많은 종교가 생장소멸을 반복했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가용한 모든 종교적 자원을 동원하여 실현 가능한 온갖 종교를 세상에 등장시킨 시기였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포교규칙」을 공포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70] 「포교규칙」은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분류하고 포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나머지 종교는 총독부에 등록하여 '종교'가 아니라 '종교유사의 단체'로 인정받을 때만 포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의 신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유사단체' 또는 '유사종교'로 분류된 채 결사 단체라는 관점에서 관리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신종교는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일본 종교로 전교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반응하면서 종교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다. 종교에 따라 저항, 타협, 전교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안에서 세 가지 모습이 시기에 따라 번갈아

68) 「昭和17年豫第26號/昭和18年豫第4號 豫審終決判定」, 京城地方法院, 昭和18年(1943) 8月 14日.
69) 「수운교의 독립운동사」, 『水雲教報』 91, 수운교본부, 水雲降生 198년(2019) 5월 25일, 7면.
70) 「布教規則」, 『朝鮮總督府官報』 911, 朝鮮總督官房總務局印刷所, 大正4年(1915) 8月 16日, 154-155면.

표출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신종교를 획일적인 모습으로 묘사할 수는 없다.

수운교는 미타교, 흥룡사, 무극대도 등으로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일제강점기 신종교가 식민지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가능성을 남김없이 제시했다. 표면에서는 줄곧 일제에 타협하고, 끝내 일본 불교로 '집단 개종' 하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장 개종'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면의 핵심에서 수운교는 식민지 상황에 대한 종교적인 저항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진면목은 친일과 반일의 이분적인 도식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의도적으로 종교 외부의 자료를 통해 종교를 묘사하고자 했다. 수운교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많은 신종교는 식민지 상황과 관련한 자료 가운데 자기 종교에 유리한 자료만을 취사선택하여 초기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용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역사를 서술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식민지 시기에 신종교가 실현했던 매우 독특한 종교적 가능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

수운교에서 종교의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수운교는 종교적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기 종교를 폐기하고 잠시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수운교는 계속 움직이는 종교였고, 근대적인 종교 개념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종교였다.

▌참고문헌

1. 신문류

『朝鮮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時報』, 『京城日報』, 『朝鮮新聞』, 『時代日報』, 『中外日報』, 『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 『朝鮮民報』, 『釜山日報』

2. 조선총독부 문서 자료

「布教規則」, 『朝鮮總督府官報』 911, 朝鮮總督官房總務局印刷所, 大正4年(1915) 8月 16日.

「大正八刑控第234號 判決」, 京城覆審法院, 大正八年(1919) 4月 30日(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관리번호: CJA0000173).

「大正十刑公第411號 判決」, 京城地方法院, 大正十年(1921) 6月 3日(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관리번호: CJA0000269).

「宗教及同類似團體ノ狀況」, 『제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경찰청 경무국, 1937년.

「年代表竝陰陽曆對照表」, 『昭和十三年略曆』,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昭和 12년(1937).

「興龍寺創立許可ノ件 (學務局長 發 忠淸南道知事 宛, 昭和 13年[1937] 4月 14日)」, 『昭和十三年 宗教 寺院에 關한 雜件綴』,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193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관리번호: CJA0004847).

「興龍寺ノ指導ト監督ニ關スル件 (學務局長 發 忠淸南道知事 宛, 昭和 13年[1938] 12月 14日)」, 『昭和十四年 宗教 寺院에 關한 雜件綴』,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193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관리번호: CJA0004854).

「昭和十三年度に於ける鮮內思想運動の概況」, 『思想彙報』 18,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39.3.

「思想犯罪から觀た最近の朝鮮在來類似宗教」, 『思想彙報』 22,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40.3.

「鐵高祕 第1056號: 祕密不穩類似宗教檢擧ニ關スル件, 鐵原警察署長/朝鮮總督府江原道警部北村 發, 京城地方法院檢事正 殿」, 『思想에 關한 情報(警察署長)』(京城地法 檢事局, 1940.8.17.-1943.5.31), 昭和 16年(1941) 12월 1일.

「昭和17年豫第26號/昭和18年豫第4號 豫審終決判定」, 京城地方法院, 昭和18年(1943) 8月 14日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관리번호: CJA0000008).

3. 논문 및 저술

강돈구, 「수운교의 특징과 전개」, 『종교연구』 42, 한국종교학회, 2006.

김정인, 「大韓帝國期·日帝强占期 侍天教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국사편찬위원회, 2003.

변문호, 「수운교 연혁 및 교리개관」, 『신종교연구』 3, 한국신종교학회, 2000.

수운교교리연구원, 『수운교 진리』, 수운교 출판부, 1999.

수운교본부, 「수운교의 독립운동사」, 『水雲教報』 91, 수운교본부, 水雲降生 198년(2019) 5월 25일.

이유나, 「구술사 방법론을 이용한 수운교 연구」, 『인문학연구』 50,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5.

이찬구, 「수운교 경전성립과정 고찰」, 『신종교연구』 17, 한국신종교학회, 2007.

中川矩方, 『內地·鮮·台·滿洲国思想犯罪捜査提要』, 東京: 新光閣, 昭和9(1934).

中西直樹, 『植民地朝鮮と日本仏教』, 京都: 三人社, 2013.

池田林儀, 「水雲教の東本願寺歸屬, 朝鮮類似宗教の將來性」 1-4, 『京城日報』, 1937.2.14.-18.

新野和暢, 「十五年戦争期の韓国宗教 : 水雲教の日本国真宗大谷派への帰属について」, 『日本佛教文化研究』 17,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7.

【Abstract】

A Study of Disguised Conversion of New Religio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Focusing on the Case of Suwoongyo

Lee, Chang Yick*

Perhaps no other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n was characterized by the rise and fall of so many religions than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occupation was a time when all available religious resources were mobilized to create as many religions as possible.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birth, growth, and splintering of Suwoongyo, a Tonghak-affiliated new religious sect, and to trace its conversion to Japanese Buddhism in 1937 and the exposure of its disguised conversions in 1938 and 1941.

Suwoongyo, which kept changing its name to Mitagyo, Heungryongsa, Mugeukdaedo, demonstrated the standard possibilities of a new religion in a colonial context. On the surface, it presents a pro-Japanese picture of compromise and eventual 'mass conversion' to Japanese Buddhism. However, at its core, as evidenced by the 'disguised conversion' incident, Suwoongyo continued its religious resistance to the colonial situation. Thus, the true nature of new religio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s not well captured by the pro-Japanese/anti-Japanese binary.

This study intentionally sought to portray the religion through sources outside of the religion. Many extant new religions, including Suwoongyo, often describe their early history by cherry-picking data from the colonial context that is favorable to their religion. However, by failing to use all available sources to create a three-dimensional history, we are missing out on the very unique religious possibilities that new religions realiz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Keywords: Suwoongyo(水雲教), Disguised Conversion, Mitagyo(彌陀教), Heungryongsa(興龍寺), , Shinshū Ōtani-ha(真宗大谷派).

접수일: 2023.06.29.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 of Korean Studies, Korea Univ.